



전북·장수출신 농협중앙회 임직원, 고향사랑기부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김준오)는 지난 8월30일 장수출신 농협중앙회 임직원들과 장수군(군수 최후식)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농협경제지주 허용준 양곡부장, NH농협은행 장길환 여신기획부장, 정영선 감사(외국부장), 이용기 ESG팀장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날 기탁식은 장수군 농축산물 브랜드인 '장수가꿈' 런칭 및 장수홍보사와 관측행사와 함께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최후식 군수는 "장수출신 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장수군 고향사랑기부금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허용준 부장은 "앞으로도 장수군 고향사랑기부금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기부금 통해 장수군의 유대감과 뿐만 아니라 함께 잘사는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단체품을 제공한다. 또한,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 귀농귀촌학교 하반기 교육생 20일까지 모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와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는 하반기 귀농귀촌학교 교육생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시 귀농귀촌학교는 귀농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과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업 기초 이론부터 현장 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평일과 토요일에 합숙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비는 20만원이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교육 신청은 5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jerturn6789@naver.com) 또는 팩스(063-533-6799)로 접수하거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귀농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읍시가 귀농귀촌인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아영면, 아영초·중 방문 지역사회 현안 홍보

남원시 아영면 행정복지센터는 아영초와 아영중을 방문,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의 현안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면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지역 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10월에 개최 예정인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에 관심이 있었으며, 이에 아영면은 제전의 목표와 행사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지역경제와 관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남원누리시민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며 제도의 실질적인 이점을 강조했다.

이금연 아영면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 공동 아이콘 '바둑'으로 뭉치다

전북자치도-장수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청소년 친선 바둑대회 개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전북특별자치도-장수성 청소년 친선 바둑대회가 최근 중국 장수성 난징 이시원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장수성 청소년 친선 바둑대회는 전북자치도-장수성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아마추어 3년 이상 청소년 바둑에 호가 12명씩 총 24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돼 오던 바둑대회를 올해 첫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양국 청소년들 간의 수담(手談)을 통해 우정을 쌓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평시엔중(丁先中) 중국 장수성 의사관광실 2급 순시원 김정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정의 축사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차세대 바둑 인재들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배우는 장으로 본 대회의 의미를 새기고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청소년 친선 바둑대회를 통해 양국의 청소년들이 바둑으로 교류하며, 국제적인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단순 시합을 넘어 전통 바둑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는 팀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북바둑협회에서 추천한 전북자치도 선수들과 장수성 선수단은 국가별 12명으로 구성해 총 5라운드 경기로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고창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고창군이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3일 등리극락당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기념행사는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점순) 주관으로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역대 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양성평등주간 유공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고창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 개최사 및 축사, 양성평등 퍼포먼스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주제로 한 양성평등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양성평등 퍼포먼스로 성별에 따른 차별없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한 의미를 담아 참여자 전원이 '손에 손잡고'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점순 협의회장은 "우리 모두가 양성평등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고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배려와 공감, 소통에 더욱 앞장서는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행사가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고창군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행사가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고창군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제10기 찾아가는 마령면 노인대학 특강

전춘성 진안군수는 3일 마령면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부설 찾아가는 마령면 노인대학 어르신 46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진안」이라는 비전 아래 민선 8기 균형 발전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전춘성 군수는 "인생의 지혜와 경험으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노년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접근성이 취약한 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2개 면을 찾아 건강프로그램, 교양강좌 등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령면 노인대학은 8월부터 11월까지 13회 32시간 수업을 진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신규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

남원시가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력 향상 및 실무 투입 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올해 합격한 신규공무원 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남원바로알기 △직무·소양교육 △주요사업 현장교육 △주요시설 현장교육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교육은 최경식 시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 현장 및 주요시설 견학 △공직가치 및 청렴교육 △시정 비전과 주요 업무교육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교육 △민원 응대 교육 등 공무원 생활에 도움이 될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시 바이오연구원 △합평유 아트밸리 등 주요 사업에 정지를 방문해 담당자 설명을 청취하면서 시의 미래비전을 확인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군, 악성민원 비상대응 모의훈련

완주군이 군청 열린민원관에서 악성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은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제지, 중재 시도, 녹음·녹화 실시(웨어러블 캠), 비상벨 신고,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 및 연계 등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모의훈련은 13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자체 실시해 민원인들이 군청 읍·면사무소 방문 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박진상 호사량요양병원장, 전북대에 1억원 기부

박진상 원장(전주 호사량요양병원)이 개교 77주년을 맞아 전북대학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3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안오봉 총장과 최병선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박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지역에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또 지역 저소득층에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교인 원광대에도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올해 전북대가 개교 77주년을 맞아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지역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다.

/장문성 기자



남원시 동동동, 1일 1가구 취약계층 집중 가정방문

남원시 동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일 1가구 취약계층 집중 가정방문'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정방문 대상은 독거 어르신과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명절 기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획, 집중 살핌을 통해 안부 확인, 정서적 지지, 추석 맞이 기부 물품(떡, 휴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방문한 세대의 어르신은 명절을 앞두고 찾아와 주니 너무 좋다면서 고움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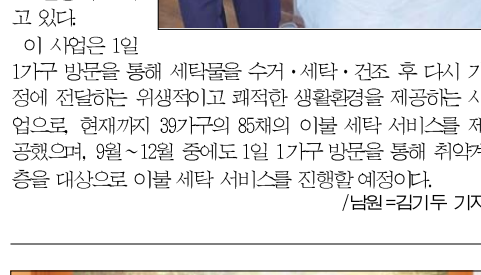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산동면, 이불 세탁 서비스 사업 연중 추진

남원시 산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이불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이불 세탁 서비스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세탁물을 수거·세탁·건조 후 다시 가정에 전달하는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9가구의 85세의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9월~12월 중에도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세탁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박미란 포럼 대표, 무주군에 생천마진액 기탁

무주군은 3일 농협회사법인(주)포럼 박미란 대표가 생천마진액 2백 박스(1천 9백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에서 박미란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기운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몸에 좋은 천마진액을 준비했다"라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건강한 무주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농협회사법인(주)포럼(직원 수 18명)은 건강식품(배도라지즙, 홍삼 및 천마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올 설 명절에도 간부들이 모금한 1백만 원과 직접 생산한 배도라지즙도 1백 박스(3백만 원 상당)를 기탁해 귀감이 되기도 했다.

/무주=전문성 기자